

[성주간] 성지주일 수난복음 가해(짧은 복음)

마태 27, 11-54

(해설자)



마 태 오 가 전 한 우 리 주 예 수 그리스도 의 수 난 기 입 니 다.

(해설자)



그 때 에 예 수 님 께 서 총 독 앞 에 서 셧 다. 총 독 이 물 었 다.

(다른사람) (해설자)



["당 신 이 유 다 인 들 의 임 금 이 오?"] 예 수 님 께 서 대 답 하 셧 다.

(그리스도) (해설자)



["네 가 그 령 게 말 하 고 있 다."] 그 러 나 수 석 사 제 들 과 원 로 들 이



당 신 을 고 소 하 는 말 에 는 아 무 대 답 도 하 지 않 으 셧 다.

(다른사람)



그 때 에 빌 라 도 가 예 수 님 께 물 었 다. ["저 들 이 갖 가 지 로

(해설자)



당 신 에 게 불 리 한 증 언 을 하 는 데 들 리 지 않 소?"] 그 러 나 예



수 님 께 서 는 어 떠 한 고 소 의 말 에 도 대 답 을 하 지 않 으 셧 다.



그 래 서 총 독 은 매 우 이 상 하 게 여 겼 다. 축 제 때 마 다 군 중

이 원 하는 죄 수 하나 를 총 독 이 풀 어 주 는 관 례 가 있 었 다.

마 침 그 때 에 예 수 바 라 빠 라는 이 름 난 죄 수 가 있 었 다.

(다른사람)
사 람 들 이 모 여 들 자 빌 라 도 가 그 들 에 게 물 었 다. ["내 가

누 구 를 풀 어 주 기 를 원 하 오? 예 수 바 라 빠 요 아 니 면

(해설자)
메 시 아 라 고 하 는 예 수 요?"] 빌 라 도 는 사 람 들 이 예 수 님

을 시 기 하 여 자 기 에 게 넘 겼 음 을 알 고 있 었 던 것 이 다.

빌 라 도 가 재 판 석 에 앉 아 있 는 데 그 의 아 내 가 사 람 을 보

(다른사람)
내 어 말 하 였 다. ["당 신 은 그 의 인 의 일 에 관 여 하 지 마 세 요.

지 난 밤 꿈 에 내 가 그 사 람 때 문 에 큰 괴 로 움 을 당 했 어 요."]

(해설자)



그 동안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구슬려 바라빠



를 풀어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없애 버리자고 하였다.

(다른사람)



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. ["두 사람 가운데에서 누구를

(해설자)



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오?"] 군중이 대답하였다.

(회중) (해설자)



["바 - - 라 빠요."]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.

(다른사람)



["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?"]

(해설자) (회중) (해설자)



군중이 모두 외쳤다. ["십자가에 못 박으시오!"] 빌라도가

(다른사람)



다시 물었다. ["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?"]

(해설자) (회중)



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. ["십자가에 못 박으시오!"]

(해설자)



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 할 수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



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,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

(다른사람)



을 씻으며 말하였다. ["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소.

(해설자)



이것은 여러분의 일입니다."]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.

(다른사람)



["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입니다."]

(해설자)



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빠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



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 주었다.



그때에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데리고



가서 그분들레에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, 그분의 옷

을 벗 기 고 진 흥 색 외 투 를 입 혀 다. 그 리 고 가 시 나 무 로 관

을 엮 어 그 분 머 리 에 씌 우 고 오 른 손 에 갈 대 를 들 리 고

서 는 그 분 앞 에 무릎 을 꿇 고 이 령 게 말 하 며 조 롱 하 였 다.

(다른사람) (해설자)
["유 다 인 들 의 임 금 님 만 세!"] 군 사 들 은 또 예 수 님 께 침 을

뺄 고 갈 대 를 빼 앗 아 그 분 의 머 리 를 때 렸 다. 그 령 게 예 수

님 을 조 롱 하 고 나 서 외 투 를 벗 기 고 그 분 의 겁 옷 을 입 혀 다.

그 리 고 예 수 님 을 십 자 가 에 못 박 으 러 끌 고 나 갔 다. 그 들

은 나 가 다 가 시 몬 이 라는 키 레 네 사 람 을 보 고 강 제 로 예

수 님 의 십 자 가 를 지 게 하 였 다. 이 욱 고 끌 고 타 곤 '해 골 터'

라는 곳에 이르렀다. 그들이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

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,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

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.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

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겹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,

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.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

죄명을 붙여 놓았다. 거기 - 에는 '이 자는 유대인들의

임금 예수다' 라고 쓰여 있었다. 그때에 강도 두 사람도

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, 하나는 오른 쪽에

하나는 왼 쪽에 못 박혔다.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

어 대 며 예 수 님 을 모 독 하 면 서 이 령 게 말 하 였 다.

(다른사람)

["성 전 을 허 물 고 사 흘 안 에 다 시 짓 겠 다 는 자 야, 너 자 신 이

나 구 해 보 아 라. 네 가 하 느 님 의 아 들 이 라 면 십 자 가 에

(해설자)

서 내 려 와 보 아 라."] 수 석 사 제 들 도 이 런 식 으 로 율 법 학

(다른사람)

자 들 과 원 로 들 과 함 께 조 롱 하 며 말 하 였 다. ["다 른 이 들 은

구 원 하 였 으 면 서 자 신 은 구 원 하 지 못 하 는 군. 이 스 라 엘

의 임 금 님 이 시 면 지 금 십 자 가 에 서 내 려 와 보 시 지.

그 러 면 우 리 가 믿 을 터 인 데. 하 느 님 을 신 뢰 한 다 고 하 니,

하 느 님 께 서 저 자 가 마 음 에 드 시 면 지 금 구 해 내 보 시 라 지.

(해설자)
'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.' 하였으니 말아야."] 예수님과

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

아냥거렸다. 낮 열두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

세시까지 계속되었다. 오후 세시쯤에 예수님께서 서 큰 소

(그리스도)
리로 부르짖으셨다. ["엘리 엘리 레 마 사 박 타니?"]

(해설자) (그리스도)
이는 ["저의 하나님, 저의 하나님,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

(해설자)
습니까?"] 라는 뜻이다. 그곳에서 있던자들 가운데 몇이

(다른사람)
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. ["이자가 엘리야를 부르네."]

(해설자)
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

신 포 도 주 에 듬 뽉 적 신 다 음, 갈 대 에 꽃 아 예 수 님 께 마 시 게

(다른사람)
하 였 다. 그 러 나 다 른 사 람 들 은 말 하 였 다. ["가 만, 엘 리 야 가

(해설자)
와 서 그 를 구 해 주 나 보 시 다."] 예 수 님 께 서 는 다 시 큰 소 리

로 외 치 시 고 나 서 숨 을 거 두 셧 다.

[무릎을 꿇고 잠시 묵상한다]

(해설자)
그 러 자 성 전 휘 장 이 위 에 서 아 래 까 지 두 갈 래 로 찢 어 졌 다.

땅 이 흔 들 리 고 바 위 들 이 갈 라 졌 다. 무 덤 이 열 리 고 잠

자 던 많 은 성 도 들 의 몸 이 되 살 아 났 다. 예 수 님 께 서 다 시

살 아 나 신 다 음, 그 들 은 무 덤 에 서 나 와 거 록 한 도 성 에 들 어 가



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.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



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

(다른사람)



몹시 두려워하며 말하였다. [\"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



아 드 님 이 셧 다.]

(해설자) (회중)



주님의 말 - 씬 입 니 다. 그리 - - 스도 - 님 찬 미 합 니 다.